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와 하나님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아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얼음 깨기

예수님의 공동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온누리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경회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더온누리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꿈을 같이 돌아보고 나누어 봅시다.

1. 더온누리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 어떤 기대로 오게 되었었나요?
그리고 그 때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2. 우리 더온누리교회는 어떤 교회로 서 있기를 기대하나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바로 그 교회' 이길 소망하며 나누어 봅시다.

경배 찬양

우리는 주의 거룩한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 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소식

1. **성례식** 성례식 (11월 5일) 위한 학습/입교/세례/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2. **모집** 캄보디아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일정 : 2024년 2월17일(토) ~ 23일(금)
10월 28일까지만 신청 받습니다. (문의 : 이학엽강도사 010-6730-7517)
3. **결혼예비학교** 11/18 - 12/9(토요일,4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시간 : 오후 2시-7시 대상 : 결혼 예비 커플, 1년 미만 신혼 부부
4. **선교사 성탄 선물 보내기** 선교사님들에게 사랑을 모아 선물을 보냅니다.
문의 : 김윤숙 간사 (010-3006-9638) / 상세 내용 주보 참조
계좌 : 전북 1013-01-3001821(더미션선교회)

교회행사

10월

26,28일 성례 교육
29-11/1 더말씀으로 가을사경회
하나복DNA네트워크
김형국 목사
“교회를 꿈꾼다”

11월

1,4일 성례교육
5일 성례식
12일 성찬식
19일 추수감사주일/찬양축제
25일 결혼예비학교 시작

선교

[곽미정 선교사]

기니비사우

1. 매 주마다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도록
2. 말라리아의 위기에서 우리 아이들 모두 무사할 수 있도록
3. 영어 캠프를 통해서 모슬렘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문장 큰 울림

**진실한 질문은
진실한 답을 가져다 준다.**

**프란시스 쉐퍼 (1912-1984)
라브리 공동체 설립**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열왕기상 16장 18절)

[교회의 현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략 350만명 정도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 다시금 돌아올까요? 어쨌든, 한국 교회는 “가장 빠른 성장 그리고 가장 빠른 쇠퇴”의 기록을 경신하며 궤멸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교회를 다니게 될까요?

사실 교회에 있는 우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외 선교나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 하나님을 떠난 오늘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자기 중심성에 빠져,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약자들은 울부짖고, 가진 자는 땡땡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는 어떠합니까? 많은 학자들은 2050년은 커녕 2030년까지라도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세상은 이미 처참하게 깨어져, 지옥에 방불합니다.

[다시, 교회의 현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한듯 그저 우리끼리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재미있게 지낸다면..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던 전부일까요?

- “그럴 리가 없습니다”

1_ 메시아로서의 고백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착각하기를 교회는 목사가 세운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목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고백의 의미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헬리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판도를 바꾸는 분의 의미를 갖습니다. 깨지고, 악하고, 엉터리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 걸까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인가요? 그것은 각자도생, 약육강식의 망하고 깨어진 세상에서 다시금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만물의 깨어짐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고통이 있으십니다.

만약 복음을 나 한 명 구원받고 사는 정도로 이해한다면 너무나 편협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모두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로서 회복하십니다.

[나눔] 말씀을 들으며, 교회와 세상의 깨어짐은 무엇인가요?

[나눔] 나는 메시아로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2_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회복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역하며 만물을 회복하는 프로젝트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정말 마음 다한 고백을 갖고 있나요?

3_ 세상의 중심에서 교회 공동체를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로마의 모든 문명을 살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빌립은 이 도시를 시저에게 봉헌하였지요. 바로 이 지역에는 신전과 콜로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세속적 권력과 문화의 중심지에 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시고, 바로 여기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우리끼리만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삶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 내려오고, 그 나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부르십니다.

[나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서 내가 다시금 고백해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돌아보기]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열고 or 닫고 있나요?